

## 미래대응기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### <보도내용>

- 2026.7.7. 서울신문은 「[단독]추가 세수로 ‘미래기금’ 신설…대국민 비서 ‘모두의 AI’에 투입」 기사에서,
  - “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‘미래대응기금’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대표 인공지능(AI) 인프라 정책인 ‘모두의 AI’ 사업에도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”며,
  - “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7일 파악”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.

### <기획예산처 입장>

-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사업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,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
  -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예산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하치승 (hcs017@korea.kr)
	기금운용계획과	책임자	사무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